

“사무엘하”



웨슬리의 구원의 삶 4 단계에 맞춘 소그룹 성경공부

황헌영 목사

성경공부의 과정: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신학(Incarnational Theology)에 입각해서,
 성경을 읽고 인도자가 던진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Inductive Bible Study)
 성경적인 삶의 가치, 정체성,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Biblical Value, Identity, Purpose, VIP)
 실제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결단하고 (Social Holiness)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책임있는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해서 (Accountability, Covenant)
 개인 구원 (Individual Salvation-성령의 9 가지 열매를 맺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이룬다 (Communal Salvation-사회 정의와 문화 변혁을 실현함).

각 과의 틀:

웨슬리의 <은총의 신학> (Grace Theology)에 기반해서
 다음 5 가지 틀에 맞추어 성경공부가 진행됩니다.

- 먼저오심 (Prevenient Grace),
- 만나주심 (Justifying Grace),
- 다듬으심 (Sanctifying Grace),
- 들어쓰심 (Christian Perfection),
- 삶의 현장에서(Communal Salvation and Social Holiness)에 맞추어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을 만들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등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관찰, 해석, 적용> 질문의 세 단계로 나누는데,
 웨슬리의 은총 신학은 <관찰>과 <해석> 질문을 한 후에는, 적용 질문을 <먼저 오심>,
 <만나주심>, <다듬으심>, <들어쓰심>,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로 세분한다. 그래서 각 과에
 질문은 세 단계가 아니라 7 단계가 된다.

질문의 구성과 성경 공부 인도 주안점

관찰	본문을 읽고나서 누구나 쉽게 관찰하고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대화의 장을 연다	
해석	성경안의 호기심을 당기는 질문을 통해 전체 성경공부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때 아직 정확한 뜻을 얻지 못해도 괜찮음. 아래 질문들에 답하며 나누다 보면 차차 깨달아 질 수 있음)	
먼저오심	Prevenient Grace-선행 은총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황을 떠올리고 그 때 주님이 어떻게 찾아 오셔서 만나 주셨는지 나눈다. (선행은총: “주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뜻)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어떤 식으로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셨나요?
만나주심	Justifying Grace-의인의 은총 <u>예수님을 만나서 죄책감, 수치심, 불안감, 공포에서 벗어나 자기를 긍정하게 된 순간을 되새기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만들어 주세요. 이 때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해 주는 질문을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u> (의인은총: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뜻으로 믿음과 회개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 거듭남/중생과 같은 의미)	그렇게 _____ (앞에 표현한 단어를 사용하여 묘사함) 였던/하던 성도님의 삶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던 경험을 언제 어디서 하셨나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게 되었나요?
다듬으심	Sanctifying Grace- 성화 은총 <u>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넘어지는 과정을 반복하지만 성장하도록 돕는 질문을 만들어 주세요. 이 때 삶의 가치관 (Value)를 확인해 주는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u> (성화는총: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온전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신자의 실제 삶과 삶의 능력/치유의 은혜를 부여받는 경험을 말함)	성도님의 삶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오도록 돕는 사람이나 수단은 무엇인가요? 성도님이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붙잡았던 성경적인 가치는 무엇인가요?
들어쓰심	Christian Perfection-그리스도인의 완전 신앙인이 온전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보람을 확인하게 도와주는 질문을 만들어 주세요. 이 때 삶의 목적 (Purpose)을 되새기게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님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동체에서 실천	In community life- 믿음의 공동체 실천. 실제 매일의 삶에서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질문입니다.	성도님은 앞으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런 빛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	---	--

차례 Table of Contents

1. “진정으로 애도하는 인격”	6
2. “화합을 위한 제스처”	8
3. “교만한 입술을 물리치다”	12
4.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하는 태도”	13
5. “감사후 확신하게된 하나님의 임재 약속”	16
6. “장애와 은혜”	18
7. “신의와 명분”	19
8. “영적태만의 큰 범죄”	21
9. “죄의 치명성”	25
10. “생애 최고의 아픔 - 아들의 반역과 죽음”	27
11.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해짐”	29

1. “진정으로 애도하는 인격”

[삼하 1:17-27, 2:1-7, 새번역]

- 1: 17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18 그것을 '할 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19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20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레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21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제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22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빛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23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 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24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 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 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25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26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 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 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27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 없이 되었는가?
 2: 1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쭙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쭙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 주셨다.
 2 그리하여 다윗이 그 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3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4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5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6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7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관찰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는 노래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나요?
해석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치뤄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은 사울의 집안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나요?(삼상 31:11-13, 삼상 11, 사사기 19 장 참조)
먼저오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족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울이 도와줬던 은혜를 잊지 않고 블레셋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뤄줍니다.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본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손길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비한 손길들에게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는지요? 그 때의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만나주심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위를 칭찬하여 사울왕 쪽의 사람들을 포용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스라엘의 화합과 평화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실천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화해의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요?
다듬으심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으며 요나단은 다윗에게 '절친' 이었습니다. 비록 애증관계라 할 수 있으나 다윗의 마음에도 슬픔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애도의 시를 지어 사울과 요나단의 삶을 기리고 슬픈 마음을 추스립니다. 이러한 애도의 과정은 다윗 자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 나라의 슬픔과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에 당신은 어떠한 애도의 과정을 가졌나요? 충분한 애도를 통해 슬픔 속에서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들어쓰심	다윗은 화해를 통하여 유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왕으로서의 인격적인 자질을 보입니다. 정적을 포용하며 나라를 통일해 가는 다윗의 모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 하기 위하여 당신이 관대하게 포용하며 행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화합을 위하여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화해의 제스처는 무엇인가요?

2. “화합을 위한 제스처”

[삼하 2:12-32, 3:20-39, 새번역]

12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13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 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 한 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14 그 때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15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열두 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열두 명이 나왔다.

16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 곳을 헬갓핫수림, 곧 '칼의 별판'이라고 부른다.

17 그 날에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 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18 마침 그 곳에는,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달음박질을 잘 하였다.

19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짝 뒤쫓았다.

20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헬,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헬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21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 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헬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22 아브넬이 다시 한 번 아사헬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23 그런데도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 24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다. 그들이 기브온 광야로 들어가는 길 가의 기아 건너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다.
- 25 그 때에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고 버티었다.
- 26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 27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오."
- 28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 29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 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 강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거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 30 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열아홉 명이 없고, 아사헬도 없었다.
- 31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삼백육십 명이나 쳐죽였다.
- 32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헬의 주검을 메어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아침 해가 떠올랐다.
-
- 20 아브넬이 부하 스무 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찾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 21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 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 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 22 그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 때에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그를 보내어서, 그가 무사하게 그 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 23 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 주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 곳을 떠나갔습니다."
- 24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25 넬의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26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27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28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29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30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31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 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32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33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34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 번 울었다.

35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맛이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36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37 그 때에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38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39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 주시지만 바랄 뿐이오.”

관찰	칼의 언덕'이라 불리우게 된 지역은 어디인가요? 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해석	다윗은 왜 아브넬을 유다의 중심지 헤브론에서 장사지냈나요?
먼저오심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이 용납한 사울의 사령관 아브넬을 부하인 요압이 자기 멋대로 죽이는 사태를 맞보게 됩니다. 같은 편이라고 하지만 감정을 앞세워 민족의 통일위업에 방해를 주고 다윗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이 사건을 잘 다루어 왕으로서 그의 리더십을 온 이스라엘에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어려운 상황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준비하여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일이 있나요?
만나주심	다윗은 전에는 적이었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아브넬을 용납하고 그가 죽었을 때 애도합니다. 다윗의 그런 여유있고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만나 체험한 하나님, 그가 품고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당신의 마음에 찾아온 변화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마음에 어떠한 여유와 자비의 마음이 생기었습니까?
다듬으심	요압이 동생 아사헬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하여 아브넬을 죽인 일은 다윗에게 정치적 입지를 두텁게 해주는, '나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북이스라엘 지파들과의 전쟁중에 적군의 사령관이 제거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속에서 선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가져온 눈 앞의 이득만 보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북 이스라엘의 소요를 조용히 대비해 가며 오히려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이 삶속에서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되어 흥분이 고조된적이 있었나요? 그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들어쓰심	다윗은 아브넬을 애도하며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측은지심의 자세를 보입니다. 이로인해 북쪽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왕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안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북쪽 지파를 포용해가며 이스라엘과 유다를 화해시키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위업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화해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당신이 화해의 도구로 쓰임받을 곳은 어디인가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오늘 먼저 취할 화해의 제스처는 무엇인가요?

3. “교만한 입술을 물리치다”

[삼하, 5:3-12, 새번역]

3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4 다윗은 서른 살에 왕이 되어서, 사십 년 동안 다스렸다.

5 그는 헤브론에서 일곱 해 여섯 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서른세 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6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 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 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7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 곳의 이름을 '다윗 성'이라고 하였다.)

8 그 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 먼 자들'을 쳐죽여라!" (그래서 '눈 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9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 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10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1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 주게 하였다.

12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 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 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삼하 5:3-12, 새번역)

관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얼마동안 나라를 통치하였나요?
해석	예루살렘의 시온산성은 언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다윗 성'이라 불리우게 되었나요?
먼저오심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의 왕좌를 인정합니다. 자칫 남쪽 유다와 북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하며 분열이 지속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에게 충성하던 자들을 포용하고 하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인도하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불편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오히려 최종 승리의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나요?

만나주심	다윗은 헤브론이 아닌 예루살렘을 새 도성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를 위해 그 곳에 이미 살고 있던 여부스인들과 전쟁을 해야했습니다. 여부스인들은 지대가 높아 오랫동안 그 곳을 차지하고 지킬 수 있어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쳐들어 온다고 하자 조롱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싸움에서 이깁니다.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게 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세상과 직면할 때에 교만한 무리들에게 승리한 경험이 있는가요? 나누어 보세요.
다듬으심	다윗은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예루살렘 성에 도읍을 정하게 된 일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12 절).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공로를 앞세워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매사에 인정하고 기억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나요?
들어쓰심	여부스인들은 교만하여 “다리를 저는 이들은 이 성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다윗을 경멸하다가 도리어 자기들이 그 말처럼 되어 성을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언제나 ‘말’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만한 입술은 하나님께서 벌(잠 14:3)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당신이 조심해야할 언행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공동체에서 실천	공동체에 험한 말을 하며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소그룹에서 함께 의논해 보세요.

4.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하는 태도”

[삼하 6:1-23, 새번역]

- 1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삼만 명을 징집하여서,
- 2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 3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웃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 4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 5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구와 팽과리와 심벌즈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 6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 7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8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옷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옷사라고 한다.

9 그 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10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였다.

11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 때에 주님께서 오벧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12 누군가가, 오벧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벧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벧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13 다윗은, 주님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14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15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 왔다.

16 주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 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17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 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18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고,

19 그 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20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체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1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뺏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 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댈 것이요.

22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오."

23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삼하 6:1-23, 새번역)

관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옮기려고 유다 어디로 갔나요?
해석	언약궤가 마침내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기쁨으로 춤을 추었지만 미갈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비난합니다. 두 사람이 보인 행동은 언약궤에 대한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건가요?
먼저오심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옮기는데 군사 3 만명을 데리고 갑니다. 과연 그렇게 많은 군사가 필요했을까요? 군사는 현재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지배력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백성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할 요량이었습니다.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언약궤를 함부로 만져 옷사가 죽은 일은 다윗을 포함하여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9 절)을 다시 갖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전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마음으로 찾은 때는 언제였나요? 무엇이 계기가 되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나요?
만나주심	하나님은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오벧에돔의 집을 축복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불러오는 기쁨을 확신하여 이번에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당신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요? 그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다듬으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당신이 조심히 내려 놓아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요?
들어쓰심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삼는 일은 군사의 힘이 아닌 진정한 예배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거룩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그 일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 기쁨과 감격이 상실되었다면 그 회복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그룹에서 함께 찾아 실천해 봅시다.

5. “감사후 확신하게된 하나님의 임재 약속”

[삼하, 7:1-17, 새번역]

1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2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3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서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4 그러나 바로 그 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5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6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7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 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8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 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9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10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11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 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12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13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14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15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 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17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삼하 7:1-17, 새번역)

관찰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 합니까?
해석	백향목'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다윗은 그 것으로 지은 자기의 왕궁을 그토록 감사하였을까요?
먼저오심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회고해 보면 주님이 행하신 은혜 덕분에 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선행(앞서 행하시는)은총을 깨닫는지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오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소그룹에서 나누어 보세요.
만나주심	하나님은 다윗이 일개 목동에서 왕으로 선택받아 모든 어려움을 거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것을 상기 시키며 지금도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님은 우리와 지금-여기에서 함께 하심을 알려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여기에서 당신은 어떠한 일/상황에 처해있습니까? 그러한 '지금-여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믿음을 갖기 원하실까요?
다듬으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한 곳에 정착케 하며 그 곳을 통해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지금-이곳에서 함께 하시며 영원히 돌보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 어디나 거룩한 장소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 거룩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하여 당신의 내면에 준비되어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요?
들어쓰심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서리라"(16 절)는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다윗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당신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 질까요?
공동체에서 실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이 속한 공동체(집, 직장, 학교, 친교 모임, 이웃 및 지역사회 등등)에서 확장되기 위하여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6. “장애와 은혜”

[삼하 9:5-13, 새번역]

5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6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네가 므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므비보셋입니다."

7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8 므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9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므비보셋에게 주었다.

10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대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므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 명이 있었다.)

11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므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12 므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므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13 므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관찰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자손 가운데 알려진 마지막 혈육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해석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였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먼저오심	하나님은 사울의 자손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과 손자 미가를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의 자손들은 거의 멸절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 놓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당신도 당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기까지한 사람의 가족을 만난 일이 있나요? 그 때 어떻게 그들을 대했나요?

만나주심	므비보셋은 ‘죽은 개’와 같은 자기를 다윗 왕이 거두어 주셨다고 하며 큰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므비보셋은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고 재산은 다 빼앗겼고 더구나 두다리도 성치 않은 장애를 안고 절망가운데 남의 집에 의지하여 목숨을 연명하던 처지였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실과 장애, 아픈가운데 있는 그를 구원하시는데 예상치 못하게 다윗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여 주셨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는지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다듬으심	다윗은 므비보셋의 집에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며 돌보아 주며 자기의 식탁에 함께 먹게 합니다. 왕의 식탁은 가족외에는 절대적 신뢰를 받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자손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마음에 더욱 여유를 갖고 선한 일과 정책을 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오히려 받아줄 때 마음에 어떠한 동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마음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의 동요, 어느 것일까요?
들어쓰심	다윗은 이 일을 통해 사울의 사람들을 신뢰하되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로인하여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 아래 더욱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시는 선한 일들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에서 실천	속한 공동체에 심한 상실의 경험으로 아파하거나 신체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오늘 그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7. “신의와 명분”

[삼하 10:1-19, 새번역]

- 1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 2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 3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하눈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4 그래서 하논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돌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5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 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6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벳르훅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이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천 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만 이천 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7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8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훅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9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10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12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13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14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5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16 그 때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닷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17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 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18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칠백 명과 기마병 사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19 하닷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관찰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시리아 군대와 싸워 물리친 지역은 어디인가요?
-----------	---------------------------------------

해석	다윗은 암몬의 왕 하논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건가요?
먼저오심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던 시절 자신을 도와준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수일지라도 호의를 지켰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명분을 세우려 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현재 불편을 끼치고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또한 선의를 베풀어야 할 일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지요? 그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만나주심	다윗이 나하스에게 도움을 입은 일로 그의 죽음에 조문을 보냈으나 사절을 보냈으나 그들은 이를 적국의 스파이로 여기고 모욕을 주어 보냅니다. 이 일로 다윗은 마음이 상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나요? 우리가 정의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모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습니까? 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찾아와 도우셨나요?
다듬으심	다윗은 모욕을 당한 조문사절을 변방에서 머물게 한 후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들을 보면 화가 나서 감정대로 일을 처리할까봐 취한 조심스런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세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혹스럽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떠한 방법으로 감정을 처리하고 있는지요?
들어쓰심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고 온 군대가 의기투합하여 이를 감행할 수 있도록 이끌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요?
공동체에서 실천	현재 당신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8. “영적태만의 큰 범죄”

[삼하, 11:1-17, 27; 12:1-15, 새번역]

11: 1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2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 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3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 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헛 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4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5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6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갈을 보내서, 헛 사람 우리야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니,

7 우리야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8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야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9 그러나 우리야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10 다윗은 우리야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 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야에게 물었다.

11 우리야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궐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별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 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12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야는 그 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날,

13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14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편에 보냈다.

15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야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16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야를 배치하였다....

17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 때에 헛 사람 우리야도 전사하였다.

...

12:1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2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3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4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 떼나 소 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5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6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네 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7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8 나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 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네 품에 안겨 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9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헛 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10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헛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11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12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13 그 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14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15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야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관찰	헛 사람 우리야는 어느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보는가요?
해석	다윗의 간음사건은 밧세바가 “부정한 몸”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이라고 명시(4 절)했는데 이는 율법이 정한 어떠한 의례를 말하는 것인가요?
먼저오심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에 출정해야할 때에 군대만 보내고 자신은 게으름을 피웁니다. 자신의 소명을 게을리하는 이러한 마음과 자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삶의 질서를 무너 뜨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무너 뜨립니다. 당신도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여 낭패를 보게된 일이 있었나요? 그 것은 어떠한 일이었나요?
만나주심	다윗과 대조적으로 우리야는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자신의 소명을 다하며 전사합니다. 그를 죽인 다윗은 처음에는 양심에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게 합니다. ‘양심의 가책’은 타락한 인간이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움직이시는 마음입니다. 당신도 양심의 찢림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한 일이 있나요?
다듬으심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우리야를 전쟁터 깊숙한 곳으로 보내 죽게하는 살인의 죄까지 범합니다. 죄는 죄를 낳고 더욱 참혹한 현실을 맞보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는 무엇입니까? 더욱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회개하여 용서의 은혜를 체험해 보세요.
들어쓰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행했지만 나중에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시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신은 어떠한 자세로 응답하시겠습니까?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경험한 일이 있나요? 주님께 회개 하여 보세요.

9. “죄의 치명성”

[삼하 13:13-32, 새번역]

13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 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4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15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16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큼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17 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드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라."

18 암논의 하인은 공주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렀다. 그 때에 다말은 소매에 색동으로 수를 놓은 긴 옷을 입고 있었다. 공주들은 시집가기 전에는 옷을 그렇게 입었다.

19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는 색동 소매 긴 옷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

20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네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암논도 네 오라비이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21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22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23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하술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 때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24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이야. 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짐이 될 터이니, 우리는 가지 않으나." 압살롬이 계속하여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 주기만 하였다.

26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만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27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28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 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29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30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31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 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32 그 때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까.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찰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을 죽이기까지 얼마 동안 기다렸나요?
해석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먼저오심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질책하며 죄의 댓가로 앞으로 다윗의 가정에 일어날 엄청난 일을 이미 경고하신바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헛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12:10)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최악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나주심	다윗은 자신의 간음과 살인 사건으로인해 자식들이 서로 폭행과 살인을 알삼는 아픔을 목격합니다. 잘못을 범한 영혼은 깊은 슬픔과 죄책감 속에서 죄가 파급시키는 엄청난 일들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최악으로 인하여 신음한 때가 있었나요? 그 때 당신이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듬으심	하나님의 정의는 더러운 최악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일찌라도 다윗 역시 자신이 저지른 최악으로 인하여 엄청난 형벌(자식들의 비극)을 받음으로써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최악이 가져올 형벌에 대하여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지요? 무엇이 그러한 생각을 만드는 것일까요? 그러한 생각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들어쓰심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사회에서 주목받는 공인입니다. 공인의 행동은 그것을 지켜 보는 이들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속한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이 속한 사회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은 끼치지 원하실까요?
공동체에서 실천	지금 소그룹에서 각자 ‘나’의 죄악을 조용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보세요.

10. “생애 최고의 아픔 - 아들의 반역과 죽음”

[삼하 15:13-16, 15:23-30, 18:9-17, 18:33 새번역]

15:13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14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 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15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16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열 명만 남겨 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

15: 23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 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24 그런데 그 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아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25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26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27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28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 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29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 곳에 머물러 있었다.

30 다윗은 올리브 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

18:9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10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 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11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네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12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천 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 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13 제가 임금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14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나무의 한가운데 산 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15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열 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16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17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 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

18:33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하고 울부짖었다.

관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달아난 방향은 어디이며 어떤 지형에서 머물게 되었나요?
해석	다윗은 왜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고 도성에 남기어 간직하도록 하였을까요?
먼저오심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자기로 하여금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싫어하시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자신은 그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도 불확실한 미래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었고 그 때 당신이 소망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만나주심	다윗은 밧새바를 간음하고 살인의 죄를 저지른 댕가를 이렇게 나라가 온통 뒤집혀 혼란스러운 아수라장의 경험을 합니다. 물론 이를 계기로 다윗은 더욱 통회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도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된 때가 있었나요? 그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다듬으심	다윗은 압살롬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아들에 의하여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한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가정을 잘 경영하는 일이 아주 중요함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당신의 가정은 평안한가요? 가족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당신이 가족을 위하여 지금 당장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무엇인가요?
들어쓰심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넘어서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받은 소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삶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계속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에서 실천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지도자는 도덕적인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 보세요.

11.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기록해짐”

[삼하 24:1-4, 8-25 새번역]

1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2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 주시오."

3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4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

8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9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팔십만이 있고, 유다에는 오십만이 있었다.

10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11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12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13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일곱 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15 그리하여 그 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칠만 명이나 되었다.

16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어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 때에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었다.

17 그 때에 다윗이 백성을 쳐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 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18 그 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19 다윗은 갓이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곳으로 올라갔다.

16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어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 때에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었다.

17 그 때에 다윗이 백성을 쳐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 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18 그 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19 다윗은 갓이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곳으로 올라갔다.

20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21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 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22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땀감으로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23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은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4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오.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십 세겔을 주고, 그 타작 마당과 소를 샀다.

25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관찰	다윗이 혼란한 마음 속에서 나라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유대에 싸울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나요?
해석	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을까요?

먼저오심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킨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혼란스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려 하는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음을 확인하려고 시험해 보신 경우가 있는지요?
만나주심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행하여 벌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참작하시어 벌을 멈추십니다. 인간의 잘못은 크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더욱 커서 정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당신이 잘못을 범하였을 때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어떠한 경험이었나요?
다듬으심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자신의 셈(인구조사)을 의지하였던 부적절한 행위를 뉘우치려고 제단을 쌓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이스라엘에서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왕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함을 온 천하에 알립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는 것이 있나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하던 것으로서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들어쓰심	다윗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 그 땅을 매입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땅을 거저주겠다는 아라우나의 제안을 뿌리치고 값을 치루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회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염병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더이상 부담과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홀함과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 부터 더욱 귀하게 들어쓰임 받기 위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에서 실천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당신이 취해야 할 첫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여야 모두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